

[종합]

여수·고흥 특별재난지역 추가

2차 21곳 선포... 전국 39개 시·군으로 늘어 복구비중 지방비 부담 최고 80% 국고 지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등 전국 21개 시·군 지역이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은 여수시와 고흥군을 비롯,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춘천, 강릉시, 영월, 화천, 철원군, 충북도 제천시, 단양, 진천, 음성, 괴산군, 경북도 성주군, 경남도 사천, 김해, 밀양, 양산시, 함안, 창녕, 거창군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9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차로 발표된 완도

등 18개 시·군을 포함해 모두 39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또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994가구, 2천14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조 625억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오는 14일 중앙재난

안전대책회의 개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광충동계유림피해 관련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동으로 복구전담반을 구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현지실사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이전에 완전 복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공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에는 완도를 비롯, 울산시 울주군, 강원도 인제, 평창, 정선, 홍천, 횡성, 양구, 양양군, 경북도 경주시, 경남도 진주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함천군 등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동아시아대회 유치추진 현판식 11일 오전 서구 화정동 광주시체육회 국민생활관 1층에서 2013년 제6회 동아아시아대회 유치위원회 현판식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北 수해복구 지원 정부·韓赤 합의

정부와 대한적십자사(한적)는 북한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쌀과 복구 지원장비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10일까지 민간단체를 상대로 대북 수해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뒤 11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지원규모와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5당도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북한 수해복구를 위해 생필품과 의약품, 건설자재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상향 회담 총재를 만나 쌀 지원을 포함, 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울촌 1산단 개발사업 '탄력'

현대건설과 2년간 10만평 우선 개발기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울촌1산단 개발의 결실들이 되어왔던 자금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산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울촌1산단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2년 동안 이자 없이 10만 평 규모의 공장용지를 우선 개발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구역청은 "공장 부지 10만 평에 대해서는 개발 이후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현대건설이 2년간 공사대금과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개발되는 10만 평은 현대자동차가 '투자성이 없다'며 지난해 말 대항개발계약을 해지한 130만 평 중 일부다. 자유구역청은 지방채 발행 등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오는 2011년까지 매년 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울촌1산단을 직접 개발할 계획

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200~250억 원만 투자하면 돼 매년 16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우선 투자,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조기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사 조기 완공과 분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울촌1산단은 지난 1994년부터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전체 개발대상 부지 277만 평 가운데 60%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현대하이스코 등 12개 업체가 입주,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야, 北지원 추경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5당은 10일 북한 수해복구를 위해 생필품과 의약품, 건설자재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필요시 관련추경예산 편성에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우리당 김현미 원내기획 부대표가 밝혔다. 김 부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북측의 피해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란데 공감하며 민족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수해지원 및 복구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생필품, 의약품, 건설자재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국회 남북특위에서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방북단 구성 논의 ▲필요시 수해지원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김 부대표는 설명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빛의 만경

- 김종두



저런 軍紀로 말...?

박성범 의원직 상실 위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66)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돼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물품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은 실질은 공천과 관련한 수수행위로 봐야 한다. 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잘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1면 '한나라 호남사과' 계속

그 동안 박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끼친 '유신 피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한 적은 있으나 지금까지 한나라당 전신인 정당을 포함, 호남을 대상으로 한 당 차원의 공식사과는 없었다. 따라서 일단은 의미있는 '사과'로 해석된다. 강 대표는 모두발언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누군가 한번 풀고 넘어가야 할 역사의 아픔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사과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역사적 아픔에 대해 '균형발전 미흡'과 '인제 발굴의 차별'을 재거론했다. 그는 나아가 "가슴 아픈 부분이 많다"며 "5·18에 대한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근대화시절부터 5·18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사과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전에는 통할까>=지역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당 차원의 첫 사과라고는 하나, 왜 그가 지금 호남에 사과하려 하나 하는 의아함이 앞서기 때문이다. 우선 5·18을 일으킨 세력의 진심어린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민들은 한나라당의 사과를 대선 전략으로 보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에 본능적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이 "호남에 대해 '사과'가 아니라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인적쇄신을 통해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호남에 올바른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한나라당도 이 사과가 전부가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사과가 호남에 다가가는 필요조건이라면 예산 지원 등 향후 호남에 대한 수많은 배려가 충분히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 호남 사과가 일회용 이벤트에 그칠지, 진실에 기초한 화해의 손길일지 주목해 볼 대목이다.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587 (2006하단593)면책 파산자 이은복 (770816-*****) 주소 광주 남구 백운동 419 대충백운동스카이 1차 102동 203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596 (2006하단603)면책 파산자 고명화 (581115-*****) 주소 광주 서구 화정동 782-12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00 (2006하단604)면책 파산자 이명순 (620125-*****) 주소 여수시 미평동 731-3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04 (2006하단615)면책 파산자 전명관 (591201-*****)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121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06 (2006하단619)면책 파산자 김명선 (540522-*****) 주소 포천시 대성동 172-11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08 (2006하단621)면책 파산자 이순남 (480718-*****) 주소 광주 남구 방림동 92-1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10 (2006하단623)면책 파산자 주혜원 (731110-*****) 주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민연리 243 부영3차 아파트 306동 1117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13 (2006하단627)면책 파산자 송명순 (741124-*****) 주소 광주 서구 농성동 390-67 다가구주택 1층 104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14 (2006하단633)면책 파산자 조관호 (611118-*****) 주소 광주 광산구 생암동 672-2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15 (2006하단635)면책 파산자 김정빈 (720214-*****) 주소 순천시 별량면 구룡 리 94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24 (2006하단647)면책 파산자 조은영 (730413-*****) 주소 광주 광산구 운남동 32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19 (2006하단639)면책 파산자 이양순 (760119-*****) 주소 광주 북구 연제동 2- 2 광명그린파크맨션 10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22 (2006하단645)면책 파산자 박순자 (661122-*****) 주소 광주 남구 진월동 241 현대3차아파트 301동 1008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23 (2006하단646)면책 파산자 최한수 (661126-*****) 주소 광주 광산구 운남 동 32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627 (2006하단650)면책 파산자 천용 (801121-*****) 주소 전남 해남군 현산면 옥동리 14-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5하면1228 (2005하단1179)면책 파산자 이춘화 (561122-*****) 주소 광주 북구 두암동 827-23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462 (2006하단455)면책 파산자 김부순 (610407-*****) 주소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112-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512 (2006하단511)면책 파산자 김영애 (450816-*****) 주소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88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518 (2006하단519)면책 파산자 정종래 (650130-*****) 주소 광주 광산구 운남동 777-1 주공아파트 301동 10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570 (2006하단577)면책 파산자 전종대 (750217-*****) 주소 광주 서구 화정동 1507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면436 (2006하단428)면책 파산자 박성희 (740220-*****) 주소 광주 서구 내방동 848 내방마을주공아파트 109동 807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19면으로 계속